

강진군, 마랑놀토수산물시장 개장 준비 '총력'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반값 가족여행 시즌2' 연계 LED바다분수·토요음악회·마술쇼 등 즐길거리 '풍성'

강진군이 완연한 봄 속에서 즐기는 '2024년 제8회 마랑놀토수산물시장'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은 오는 27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마랑놀 중방파제(마랑면 미항로 152)에서 운영된다.

군은 이번 축제를 '반값 가족여행 시즌2'와 연계해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장 행사는 27일 오후 2시 마랑놀토

수산물시장 내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성공 기원 퍼포먼스와 함께 목포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현장 녹화방송으로 진행된다.

축하 무대에는 '불타는트롯맨 Top1' 손태진, 배일호, 이소나, 김현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운영·판매부스는 5종 29개소로 횡집 등 음식점 4곳, 수산물코너 7곳, 건어물 판매장 2곳, 길거리음식 6곳, 할머니장터 10곳에서 싱싱한 수산

물과 다양한 먹거리를 매주 토요일마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강진군은 체형, 의상, 포즈 등 다양한 요소를 변경해 멋진 프로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포토 부스와 무중력 퍼포먼스, 공중 부양 포토존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 LED바다분수와 미디어 파사드 설치로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MZ세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토요음악회 댄스공연, 퓨전국악, 마술쇼,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관광객 노래자랑을 통해 방문객들이 숨겨진 재능과 끼를 표현할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을 마련



강진군이 오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마랑놀 중방파제(마랑면 미항로 152)에서 '2024년 제8회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을 운영한다. 사진은 마랑놀토수산물시장 전경. <강진군 제공>

해 즐길거리를 확대해 계획이다.

금대교 등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커피테이블 통해 특정한 색의 옷을 입고 전방대 카페를 방문하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

행한다.

임영웅이 '마랑에 가고싶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팬들의 성지 순례 코스가 된 마랑항에서 열리는 마랑놀 토수산물시장은 지난 2015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105만여명 이상이 다녀가며 총 매출액 1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반값 가족여행을 통해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격과 품질로 다시 찾고 싶은 강진을 만들고, 관광객 대거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영암콜버스, 시간 절약·경제성 'UP'

부르면 달려가는 '영암콜버스'가 시행 한 달만에 이용객 81% 증가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각각 실무자 회의, 중간평가 보고회를 잇달아 개최, 콜버스 운행 한 달 성과, 개선점,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암콜버스는 택시의 편리함과 버스의 경제성을 합쳐 놓은 혁신 대중교통 서비스로, 지난달 5일 지역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삼호읍에 첫 도입돼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이 호출하면 달려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영암군은 두 차례 회의에서 콜버스 호출 휴대폰 앱 '셔클' 운영자(추천대자 동차와 버스 운행사 남주·영암행복버스)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의 콜버스 운영 성적표를 공유했다.

성적표에 따르면 영암콜버스는 기존 노선버스와 비교해 한 달 동안 대기시간 최고 71% 감소, 1인당 탑승 시간 69% 감소, 총 이용객 81% 증가, 수송능력 90명대 돌파 등의 성적을 거뒀다.

버스 대기시간은 최대 90분에서 최소 26분으로, 1인당 총 탑승 시간이 52분에서 16분으로 각각 감소했으며, 영암콜버스 이용객은 6천315명으로 지난해 노선버스 월 평균 이용객 기준 3천489명보다 크게 늘어 영암콜버스가 노선버스의 좋은 대체 교통수단임을 입증했다.

/영암=나동호기자



함평나비대축제 '대형 꽃탑' 조성. 함평군이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앞두고 엑스포공원 주차장에 위치한 임시 10m 높이 14m 규모의 풍나무·희망나무 조형물에 웨이브사파티아 화분 4천본을 투입, 대형 꽃탑 조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목포·신안 통합, 경제적 파급효과 1조9천억"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서 협력 과제 11건 도출

목포시와 신안군이 연구 용역을 통해 통합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9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는 17일 "지난 15일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에 대해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시 신안군 통합추진(준비)위원, 시의회 의원, 간부공무원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통합사례 분석, 주민 의견 조사 결과, 부분별 통합 효과 분석, 통합시 비전과 상생협력과제 도

출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마련 연구 결과 발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 용역에서 목포시·신안군 행정 통합 효과로 행정 편익이 9천736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 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9천억원, 관광객 수도 2027년에 2천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통합 비전을 '세계로 비상하는 해양문화도시'로 설정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식품 산업을 미래성장 동력 산업

으로 육성하는 한편, 역사 문화와 해양 생태관광 플랫폼 구축 등 핵심 전략과 상생 협력 과제 11건을 도출하고 세부 추진과제 26건을 제시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는 2026년 7월 1일 목포신안 통합 출범을 목표로 통합 로드맵을 설정해 각 단계별 추진 과제를 완성해 가야 한다"며 "2단계로 무안과의 통합을 이룸으로써 광역 단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통합 관련 특별법과 조례에 명문화 한 청구서가 청원군에 양보한 주요 혜택을 포함해 주요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목포신안 통합시 각종 특례를 추가해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주민설득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목포=정혜선기자

신안군 '2024 섬 톨립 축제' 성료

8만명 방문...신안 주민 22배 규모

신안군은 17일 "임자면에서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열린 '2024 섬 톨립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톨립 축제는 '누려라!!! 느끼라!!! 즐겨라!!!'형색색 톨립으로라는 슬로

건으로 개최돼 전국에서 8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는 신안 주민 3천600명의 약 22배 규모다.

이번 축제에서는 주말 버스킹, 캐리커처 그림 그리기, 톨립 만들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 거리를 제공해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다.

/신안=양훈기자

해남군 '김산업 진흥' 본격 추진

수산물식품산업단지 내 식탁김·부각김 생산시설 신설

해남군은 수산물식품산업거점단지 내 식탁김·부각김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본격적인 식탁김 생산에 나선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김 생산시설을 해남군수협 수산물식품가공업단에 10억4천700만원을 지원해 마산면 식품특화단지 내 수산물식품산업거점단지 471㎡ 규모의 식탁김·부각김 생산라인을 신설했다.

해남군은 올해 하반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1일 생산 기준 식탁김은 마른김 400속(1만2천봉), 부각김은 마른김 50속(800봉)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해남군은 마산면 수산물식품산업거점단지에서 식탁김·부각김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현장 점검과 시운전을 실시했다. <사진>

해남군은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친환경 유기인증 물김을 활용해 소비자 수요에 맞춘 고차 가공김을 생산하고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에 이르는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해남김의 우

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통해 국도비 등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고품질 김 생산과 김산업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전국 최초로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황산면의 지주식 김에 대한 지역브랜드 및 김 가공식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해남김



해남김을 생산하는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친환경 유기인증 물김을 활용해 소비자 수요에 맞춘 고차 가공김을 생산하고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에 이르는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해남김의 우

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발전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김은 전국 물김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른김 가공공장 또한 100개소가 넘는 전국 최대 규모로 어민소득 향상과 수산 경쟁력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군 유기인증 가공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개선 등 품질 향상을 통해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개발·홍보를 통해 시장 진출 판로 확보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영광교육지원청, 등굣길 학교 흡연예방 캠페인

금연 문화 확산 등 유해성 강조

영광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 내 흡연 예방 홍보와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등굣길 학교 흡연예방 캠페인'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영광읍내 8개 학교(해룡중·고, 영광중·고, 영광공고, 영광육상중, 영광초, 영

광중(초)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고광진 교육장을 비롯한 간부·직원들이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 내 흡연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생·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영광교육지원청과 영광군보건소가 연계해 실시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교직원과 학생들은 흡연 예방 구호를 외치며, 흡연 예방 어깨띠, 피켓, 홍보물 등을 이용해 담배의 유해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광진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흡연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금연 문화 확산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흡연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완도군, 수원메가쇼서 전북·해조류 선포

관내 7개 업체 참여·순살 전복 편리함·전복 요리 소개

완도군은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 메가쇼 2024 시즌1'의 전남도 수산물 판촉 행사에 참가해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17일 밝혔다.

'수원 메가쇼'는 국내 최대 소비재 박람회로 올해는 지역 농수특산물, 패션, 뷰티 등 250개 기업 참가했으며, 1만명의 바이어, 5만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완도군에서는 관내 7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사)한국전북산업연합회·남도전복연합회에서 할 전복을, 이문삼육오(주)는 김 가공품을, 천지가전복(주)는 순살 전복을, 달스윗(주)는 전복 빵을, 완도다 어업회사법인인 전북 차우더를, (주)바다명가는 미역·다시마, 완도고급바다(여)는 김매생이 등을 선보였다.

특히 완도군과 (사)한국전북산업연합회에서는 '순살 전복 시식 코너'를 운영해 전복 손질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순살 전복을 홍보하고, 다양한 전복 요리를 소개해 끊임없는 방문객들의



완도군에서는 관내 7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사)한국전북산업연합회·남도전복연합회에서 할 전복을, 이문삼육오(주)는 김 가공품을, 천지가전복(주)는 순살 전복을, 달스윗(주)는 전복 빵을, 완도다 어업회사법인인 전북 차우더를, (주)바다명가는 미역·다시마, 완도고급바다(여)는 김매생이 등을 선보였다.